

청소년의 문화예술활동과 공동체의식: 자아정체성의 매개효과*

정 득** · 김은수*** · 이종석****

초 록

이 연구는 청소년의 문화예술활동이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실시한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2015)의 원시자료를 활용하여, 고등학교 2학년 1,921명(남학생 986명, 여학생 935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에 대한 생태학적 관점에 근거하여, 환경특성(부모관심도, 또래애착도, 교사친밀도, 학습적응도)이 공동체의식에 영향을 미치며, 개인특성으로서 자아정체성은 환경특성과 공동체의식과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경로모형을 설정하였다. 청소년의 문화예술활동이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문화예술 경험집단과 무경험집단 사이에 연구모형의 유의적인 경로에 차이가 있는지 구조방정식모형(SEM, 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통해 분석하였다. 문화예술활동 경험집단($n = 1,595$)은 부모관심도를 제외한 모든 환경변수가 공동체의식에 양(+)의 영향을 미치며, 자아정체성은 환경변수와 공동체의식을 매개하는 효과가 존재하였다. 반면에 무경험집단($n = 326$)은 교사친밀도와 학습적응도만이 공동체의식에 양(+)의 영향을 미치며, 자아정체성의 매개효과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청소년 공동체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수가 학교생활의 적응(교사친밀도와 학습적응도)이며, 문화예술활동은 공동체의식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자아정체성 형성에 대한 순기능을 통해 공동체의식을 함양시킨다는 것을 시사한다.

주제어: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공동체의식, 자아정체성, 매개효과, 경로분석

* 이 논문은 2015년도 한림대학교 교비연구비(HRF-201512-004)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한림대학교 경영학부 박사과정, 기독교대한감리회 창설교회 담임목사

*** 한림대학교 경영학부 박사과정, (주)창작마을 공리 대표

**** 한림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한림경영연구소 소장, 교신저자, ljs1844@hallym.ac.kr

I. 서론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낮은 행복지수와 저조한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 등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함께, 문화예술교육 및 활동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실시된 행복지수 국제비교에서, 6년 모두 한국 청소년의 행복지수는 OECD 국가 중 최하위였다(한국방정환재단, 2014). 학교는 집단 따돌림, 폭력, 교권붕괴 등의 문제에 시달리고, 학생은 입시전쟁에 지쳐서 학교를 “꿈이 없는 아이들의 정기모임”이라고 말한다(조유나, 2010). 청소년의 학교생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은 자아정체성과 공동체의식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이현림, 천미숙, 2003; 김상미, 남진열, 2010), 이는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의 형태로 발전하여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주된 원인이 된다(이동원, 주동범, 2000).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소년활동진흥법과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이 발표되었고, 방과후학교와 자유학기제가 도입되었다. 이들 모두에서 청소년의 문화예술활동은 중요한 요소로 포함되어 있다.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 2004년에 제정된 청소년활동진흥법에서, 청소년 문화활동을 문화적 감성과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공동체의식)을 함양하는 체험활동으로 정의하여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청소년이 꿈꾸는 밝은 미래”를 비전으로 하는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은 “역량함양 및 미래핵심인재 양성”, “참여와 권리증진”, “균형 있고 조화로운 성장”, 그리고 “안전하고 건전한 생활환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방안 중의 하나가 청소년이 문화예술활동을 상시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다. 사교육비 절감과 교육격차 완화 등을 목표로 시행되던 다양한 프로그램을 2006년에 통합한 것이 방과후학교이다. 이는 자율성·다양성·개방성을 표방하며 공교육의 혁신적인 변화를 목표로 시행되었는데, 교육 프로그램으로 외부강사와 지역자원 등을 활용한 문화예술교육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2016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자유학기제의 목적은 “학생들이 스스로 꿈과 끼를 찾고, 창의성·인성·사회성 등 미래지향적인 역량을 함양하며, 행복한 학교생활을 하도록 돕는 것”이다(교육부, 2013). 오후의 자율과정은 진로탐색 활동, 동아리 활동, 예술·체육 활동, 그리고 학생 선택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청소년에 대한 문화예술교육과 활동 및 체험의 중요성은 다양한 측면에서 강조되어

왔다. 예술성이나 창의성과 같은 잠재적 소질이나 역량의 개발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발달과정에서 정서에 대한 순기능적 영향을 통해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고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하는데 기여하고, 사회화과정에서 공동체의식을 조성하여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하는 사회통합기능을 수행한다(Aktinson & Robson, 2012; Jermyn, 2001; Lowem, 2000; McCarty, Ondaatje, Zakaras & Brokkes, 2004). 이와 같은 문화예술활동의 긍정적 기능으로 인해 문화예술활동은 한국의 청소년 교육에 있어서 그 가치는 인식되어왔지만, 교육 현실에서 실제로 반영되지 못하였다. 즉 문화예술교육이 창의성, 인성, 그리고 감성개발에 중요한 가치를 지녀 정책적 조명을 받아왔지만, 입시교육 위주의 현실에서 그 가치는 부수적인 것으로 여겨져 ‘덜 중요한’ 과목 또는 ‘비정규’ 과목으로 치부되어왔다. 실제로 문화예술활동은 방과후학교의 교과목이나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활동 정도로만 여겨져 온 것이 현실이며, 이것은 우리나라만 국한된 것이 아니어서 교육전문가 Ken Robinson은 전 세계 교육시스템의 획일적인 과목 구성과 과목 쏠림 현상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특히 창의성을 말살하고 있는 교육 현실을 비판하고,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를 주장했다. 이러한 현상의 주된 원인으로 사회학자 William Hoynes(2003)는 문화예술교육의 효과성에 관한 선행연구 결과들의 불명확성을 제시했다. 그는 수많은 선행연구에도 불구하고, 문화와 예술이 개인과 사회를 어떻게 건강하고 풍요롭게 만드는지 이론적 근거를 정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많은 학자들은 문화예술교육 및 활동의 효과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 결여와 방법론적 문제점을 제기해 왔다(Daykin, Evans, Salmon, McEachran & Brain, 2008; Joronen, Rankin & Astedt-Kurki, 2008). 이들은 문화와 예술의 효과성에 대한 보다 명확한 실증연구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 연구의 목적은 문화예술활동이 청소년의 자아정체성과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제공하는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5차년도 공개된 자료를 이용하여, 고등학교 2학년 1,921명(남학생 986명, 여학생 935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은 환경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생태학적 관점에 근거하여, 환경특성(부모관심도, 또래애착도, 교사친밀도, 학습적응도)이 개인특성으로서 공동체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경로모형을 설정하였다. 또 문화예술활동의 기능 중의 하나가 개인의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고 이를 통해 공동체의

식을 함양한다는 측면에서, 자아정체성은 환경특성과 공동체의식을 매개하는 변수로 모형화하였다. 청소년 문화예술활동의 효과성을 파악하기 위해, 문화예술활동 경험집단과 무경험집단 사이에 유의적인 경로에 차이가 있는지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을 통해 분석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청소년 문화예술활동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II. 선행연구 고찰

1. 문화예술활동과 청소년 발달

문화와 예술은 개인이 자아를 형성하고 사회화되는 과정에 중요한 정서적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Aktinson & Robson, 2012; Jermyn, 2001). 즉 문화예술활동을 통해 개인은 사회생활에 적합한 인성과 감수성을 발달시킬 수 있으며, 이는 사회를 전반적으로 통합하는 토대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문화예술활동을 통한 다양한 경험은 타인과 타 집단에 대한 이해를 가능하게 하며, 이는 사회적 소통의 기반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효과를 발휘한다(McCarty et al., 2004). 또한 다양한 가치에 대한 인식을 통해 다원주의를 습득하도록 돕고, 이는 타인에 대한 수용과 관용으로 이어져 민주주의의 중요한 기반을 형성한다(McGuigan, 2004; Mulcahy, 1982).

청소년에 대한 문화예술교육과 활동 및 체험의 중요성은 다양한 측면에서 강조되어 왔다. Winkley(1996)는 정서적 문제가 있는 청소년들은 예술적 체험을 통해 감정 또는 정서적 순화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문화예술활동이 정서에 순기능적 영향을 미쳐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게 한다. 확립된 자아정체성은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하는데 기여함으로써, 문화예술활동을 통한 다양한 문화적 경험과 함께 공동체의식 조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하였다. Hampshire와 Matthijsse(2010)는 청소년 성장에 있어 문화예술활동의 효과를 영국·호주·미국에서 진행된 연구들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는데, 문화적 차이 및 지역사회에 대한 문제인식, 신체 및 정서개발, 자기인지,

자존감 향상 및 정서적 안정감, 그리고 문제행동 감소 등에 효과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국내 연구로 맹영임, 김민과 임경희(2005)는 한국청소년개발원의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조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화예술활동의 대표적인 기능은 관용과 관계의 확대로서 타인에 대한 이해를 돕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이었다. 또한 문화예술활동이 청소년 개인에게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스트레스 해소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여가 선용, 정보와 지식 획득, 생활의 즐거움과 재미, 정서적 안정감, 자신감 획득의 순으로 나타났다. 문화예술활동 참여경험 유무가 청소년에 미치는 조절효과에 초점을 둔 연구도 있다. 도종수와 성준모(2013)는 청소년 활동이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는데, 문화예술활동 참여경험은 청소년의 사회성 하위 요인인 성취동기, 공동체성, 자아존중감, 자신감 등에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리고 임영식과 정경은(2014)은 교정시설/소년원학교의 문화예술교육의 효과성을 연구하였다.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한 집단과 참여하지 않은 집단을 비교한 결과, 참여집단은 비참여집단에 비해 스트레스 감소와 자기조절력 향상이 유의적으로 높았다.

일반적으로 청소년과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연구결과는 프로그램과 이에 따른 수혜자 수, 만족도 등 가시적이고 단기적인 성과에 주안점을 두고 있거나 자존감, 자기효능감, 우울감, 스트레스, 공격성 감소, 긍정성, 자기조절 능력 등 특정 부분에만 집중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1). 또한 연구방법론적 측면에서 연구결과가 선택된 사례에 제한되는 한계성, 연구의 내적 타당도가 떨어지는 문제점, 청소년의 정서 형성 과정에 대한 증거를 실증적으로 충분히 밝히기 어려운 점 등을 문제로 제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대부분의 연구가 프로그램에 참여한 개인이나 이해 관계자 그리고 그들이 속한 지역사회에 대해서 측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선택 과정을 통해 자발적으로 참여한 대상만을 기준으로 편향된 관점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그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2. 청소년의 자아정체성과 공동체의식

1) 청소년의 자아정체성

자아정체성(self-identity)은 자아에 대한 일관된 확신과 믿음을 의미하며, 개인의 목표, 역할, 가치관 등에 대한 인식과 행동으로 표출된다. 이는 “어느 정도 실제로 성취되지만 끊임없이 수정되며 사회적 현실 안에 있는 자기의 실재에 대한 느낌이다”(Erikson, 1956). 따라서 한 개인의 인생은 자신의 정체성을 획득하는 과정이며, 청소년기는 특히 자아정체성과 관련된 중요한 변화들을 경험하고 인식하는 시기이다(Miller, 2010). 즉 청소년들이 자아를 발견하고 발달시키는 과정 중에 “나는 누구이지?”, “나는 어떤 존재이지?”, “나의 가치는?” 등에 대해 고민하고 혼란을 겪으며, 자아에 대한 재구조화나 재조직화가 이루어져 변화에 매우 민감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자아정체성에 혼란을 느끼는 청소년들은 불안, 우울, 위축, 분노 등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느끼게 되며, 대인관계의 어려움, 가출, 비행, 범죄, 자살 등의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으로 표출되기도 한다(이미리, 2005).

청소년의 자아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하지만, 선행연구들은 크게 신체적 요인, 부모관계, 또래집단, 학교생활, 그리고 사회문화적 요인의 다섯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박아청, 김혜숙, 김창대, 1996; 우순기, 2007; 최영민, 2006; 최현수, 2009). 첫째, 청소년기에 급격히 일어나는 신체적 변화는 심리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특히 다른 사람들의 자신의 신체에 대한 반응은 자아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두 번째는 부모관계로서 장휘숙(2009)은 Marcia(1996)가 제시한 자아정체성 상태의 네 가지 유형을 소개하면서, 부모관계와 자아정체성이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1) 정체성 혼란은 부모에게 애정을 느끼지 못하며 가정에 대해 거부적인 태도를 가진 청소년에게서 나타나며, (2) 정체성 유실은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여기는 가정에서 발생하며, (3) 정체성 유예는 가족구성원들의 개인차와 자율성을 인정하는 방임적 상황에서, 그리고 (4) 정체성 성취는 부모가 자신을 신뢰하고 격려한다는 부모관계에 대한 긍정적 인지가 있을 때 나타난다. 셋째로 또래집단은 청소년들에게 그들의 사고와 행동을 서로 비교하면서 자아정체성을 확립하는 준거집단 역할을 한다(한영민, 2007). 또한 또래집단은 놀이문화와 각종 정보를 공유하고 사회규범을 학습하는

장이되며, 특히 상호작용과 피드백을 통해 나는 누구이며 상대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인식하게 된다.

넷째로 공교육기관으로서 학교는 인간의 지적, 심리적, 인지적, 사회적 발달을 담당하며, 청소년기에 학교생활은 자아정체성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학교생활 적응은 정체감 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반대로 부적응은 자아정체성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이현립, 천미숙, 2003). 반대로 자아정체성이 학교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제시한 연구도 있다. 자아정체성이 높은 청소년은 학교생활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와 같은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노력하지만(이종연, 이재신, 2000), 자아정체성이 낮은 경우 교사관계나 교우관계에 부적응 행동을 보이며 학교생활에도 흥미가 없는 것으로 보고된다(박영란, 2002). 마지막으로 대중매체와 같은 사회문화적 요인은 청소년의 자아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송길연, 2000; 이차선, 1998). 최근 사이버공간은 SNS 등을 통해 다양한 정보와 문화를 획득하고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정체성 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타인의 존재를 부정하는 배타적 문화공간이 될 수도 있어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최병목, 2002). 문화예술활동은 문화나 예술과 관련된 소질이나 역량개발을 통해 자아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청소년 정서에 순기능적 영향을 미쳐 또래관계의 개선이나 학교생활 적응도를 높일 수 있다(장승욱, 한선혁, 2004). 따라서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특성을 강화함으로써 자아정체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 청소년의 공동체의식

공동체의식은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의식이나 감정으로,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소속감, 구성원이 서로에게 중요하다는 느낌, 구성원들의 욕구가 서로의 헌신으로 충족될 수 있다는 공유된 믿음이다(McMillan & Chavis, 1986). 이의 결여는 한국 사회에 만연해 있는 집단이기주의, 연고주의, 혈연주의 등과 같은 배타적 공동체의식이라는 문제를 발생시킨다(이원규, 1997). 자아정체성 확립은 소속감으로 확장되어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는 반면(Maclver, 1951), 자아정체성의 혼란은 부정적 정서를 만들어 배타적 공동체의식을 형성하게 할 수 있다(송길연, 2000). 청소년의 배타적 공동체의식은

집단 따돌림, 학교폭력과 같은 다양한 학교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이동원, 주동범, 2000), 타문화에 대한 물이해를 가져와 사회 통합에 걸림돌이 된다. 최근 다문화 가정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다양한 국가와 인종 간에 교류가 증진되고 있는 한국 현실을 감안하면, 학교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체의식의 함양은 중요한 과제가 된다.

청소년의 공동체의식에 관한 선행연구는 학교생활적응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김상미와 남진열(2011)은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과 또래애착이 공동체의식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삶의 만족도가 이러한 관계를 조절한다고 보고하였다. 반대로 최형임과 문영경(2013)은 공동체의식이 삶의 만족도와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며, 삶의 만족도는 공동체의식과 학교생활적응을 매개하는 효과가 존재하였다. 우유라와 노충래(2014)는 공격성과 같은 부정적 정서가 학교생활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데, 공동체의식은 이러한 관계를 매개한다는 것을 보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방향성에는 차이가 있지만, 학교생활적응이 공동체의식과 관련 있다는 것을 제시한다. 강가영과 장유미(2013)는 청소년의 공동체의식에 내적환경(삶의 만족도, 자아존중감, 부모관계, 또래관계)보다 외적환경(학교생활, 체험활동, 종교활동)이 상대적으로 더 영향력이 높다는 것을 제시했다.

청소년의 문화예술활동과 공동체의식의 관계에 대한 실증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우며, 사례에 의존한 개념적 수준에 관련성을 제시하고 있다. 문화예술활동이 청소년 정서에 미치는 영향은 개인적 정서와 사회적 정서 두 영역인데, 개인적 정서로서 자아정체성 확립에 기여하고 이는 사회적 정서로서 소속감을 고취시켜 공동체의식을 함양한다(주동범, 2010). 문화와 예술은 정서에 순기능적 영향을 미쳐, 긍정적인 인간 관계를 형성하는데 기여하고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공동체의식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준다(Jermyn, 2001; McCarty et al., 2004). 이러한 맥락에서 맹영임 외(2005)는 문화예술활동의 주된 기능이 청소년들의 문화감수성을 증진시키고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는 것이라고 제시하였다. 개인 차원에서는 성취감과 만족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집단 차원에서 타문화와 타인에 대한 소통과 수용 능력을 배양하여 민주의식 형성과 공동체의식을 강화시킨다고 하였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모형과 가설

청소년의 문화예술활동이 자아정체성 확립과 공동체의식 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많은 연구들에서 제시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미비한 수준이다. 선행연구 고찰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환경특성은 자아정체성과 공동체의식에 영향을 미치며, 자아정체성은 소속감으로 확장되어 공동체의식을 함양한다(MacIver, 1951).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성장과 발달에 관한 생태학적 관점에 근거하여, 환경특성(부모관심도, 또래애착도, 교사친밀도, 학습적응도)은 자아정체성과 공동체의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며, 개인특성으로서 자아정체성은 환경특성과 공동체의식을 매개하는 것으로 경로모형을 설정하였다(그림 1 참조). 이러한 연구모형을 이용하여 문화예술활동이 자아정체성과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문화예술활동 경험집단과 무경험집단 사이에 유의적인 경로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할 것이다. 특히 문화예술활동의 순기능으로서 자아정체성 형성이 환경특성과 공동체의식을 매개하는 효과가 있는지 검정할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문화예술활동은 심리적 기능으로서 자아정체성 확립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확립된 자아정체성이 공동체의식으로 이어지는데 기여한다(MacIver, 1951; Winkley, 1996). 본 연구의 연구모형과 가설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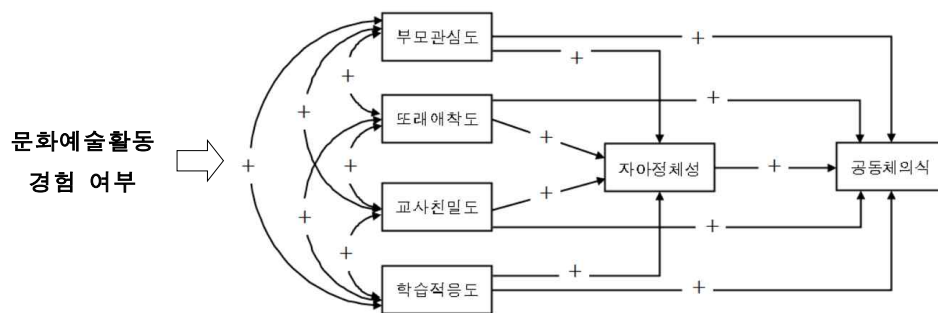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델

- H₁: 청소년의 환경특성들(부모친밀도, 또래애착도, 교사친밀도, 학습적응도)은 개인특성인 자아정체성과 공동체의식에 양(+)의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자아정체성은 매개효과를 통해 환경변수들이 공동체의식을 형성하는데 양(+)의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 H₂: 문화예술활동 경험집단과 문화예술활동 무경험집단은 연구모형의 유의적인 경로에 차이가 있다. 특히 문화예술활동 경험집단은 무경험집단에 비해, 자아정체성이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양(+)의 매개효과가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5)이 제공하는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KCYPs)’의 공개된 자료를 활용하여 수행되었다. 이 패널조사는 국내 아동과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과정을 파악하기 위해 2010년에 시작되어 2017년 까지 7년간 매년 주기로 실시하는 종단조사(longitudinal survey)이다. 2009년 4월 기준 초등학교 1학년과 3학년, 그리고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3개 코호트 다중패널을 선정하여, 매년 이들의 실태를 조사하도록 설계되어있다. 표본은 교육부 학교통계를 표집틀로 하여 78개 교에서 선정되었으며, 모집단 인구구성을 반영하여 16개 시도별로 비례 배분되었으며 권역별 특성분석이 가능하도록 1개 시도당 3개교 이상이 선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5차년도(2014) 고등학교 2학년의 자료를 사용하였는데, 무응답 항목이 있는 표본을 제외하고 1,921명(남학생 986명, 여학생 935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3.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5)에서 고등학교 2학년용으로 개발된 설문 문항들을 이용하여 측정되었다. 연구변수는 청소년의 환경특성과 개인특성으로 구분되며, 환경특성으로 부모관심도, 또래애착도, 교사친밀도, 그리고 학습적응도가 사용되었고, 개인특성으로는 자아정체성과 공동체의식이 사용되었다. 설문 문항은 중심화 경향(centralization tendency)을 제거하기 위해 ‘보통이다’에 답할 수

없게 만든 리커트 4점 척도(1=매우 그렇다, 2=그런 편이다, 3=그렇지 않은 편이다, 4=매우 그렇지 않다)로 측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변수의 의미가 강한 것을 나타내기 위해 2, 1, -1, -2점 척도로 역변환하여 코딩하였다. 문화예술 활동은 청소년이 1년 동안 학교 행사를 제외하고, 음악회, 영화, 뮤지컬, 전시회, 연극 관람 등과 같은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한 횟수로 측정하였고, 한 번이라도 참여한 집단과 전혀 참여하지 않은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환경특성 변수로서 부모관심도는 허묘연(2000)의 청소년에 대한 부모의 양육태도에 관한 문항들 중 방임에 관한 4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또래애착도는 Armsden과 Greenberg(1987)가 설계하여 측정한 애착척도 중 의사소통과 신뢰 각각 3문항을 이용하였다. 교사친밀도와 학습적응도는 민병수(1991)가 설계한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문항들 가운데 교사관계 5개 문항과 학습활동 5개 문항을 활용하였다. 개인특성으로 자아정체성은 송연옥(2008)의 척도를 보완하여 긍정적 자아정체성과 부정적 자아정체성 각각에 대해 4개 문항씩 측정하였다. 공동체의식은 권혜원(2004)이 설계한 민주시민 의식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는데, 공유된 의식이나 가치는 인간관계와 사회관계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므로 청소년의 이타적 태도에 관한 4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통해 최종분석에 사용된 변수와 구체적인 설문내용은 표 2와 표 3에 제시하였다.

4. 분석방법

통계분석은 SPSS 21.0과 AMO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연구대상의 문화예술활동 경험 여부에 따른 일반적 특징들(성별, 학교 유형, 지역, 소득수준)의 비율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Fisher의 정확한 검정을 수행하였다. 2) 연구변수들의 개념적 타당도와 내적 일관성을 검증하기 위해 요인분석과 신뢰도분석을 수행하였다. 탐색적인 요인의 추출방법으로는 주성분 분석으로 하였고 신뢰도는 Cronbach' α 로 검정하였다. 또한 추출된 측정변수들의 구성개념을 검증하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과 증분 적합도지수, 간명성 조정지수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하였다. 3) 연구변수들의 상관관계는 Pearson의 상관분석을 사용하였고, 4) 청소년의 문화예술활동

여부에 따라 연구변수들의 평균 차이 검정은 독립표본 t -검정을 수행하였다. 5) 청소년의 자아정체성과 공동체의식에 대한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6) 문화예술활동 경험집단과 무경험집단 사이에 연구모형의 유의적인 경로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구조방정식모형(SEM)을 이용한 경로분석을 수행하였다.

IV. 연구결과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표 1은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전체, 문화예술활동 경험집단, 그리고 문화예술활동 무경험집단으로 구분하여 제시한 것이다. 연구대상 전체의 성별 비율은 남학생 51.3%, 그리고 여학생 48.7%였다. 학교유형은 일반 고등학교가 1,467명으로 76.4%, 특수 고등학교가 454명으로 23.6%를 나타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시 8.6%, 광역시 33.3%, 경기도 12.8%, 기타 지방 지역은 45.3%였다. 소득 수준별 분포는 중산층이 1,288명(67.0%)으로 가장 많았으며, 상위층 375명(19.5%), 저소득층 258명(13.4%)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별로 문화예술활동 경험비율의 차이를 검정한 결과, 성별, 학교유형, 소득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문화예술활동 경험비율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았고(87.8% vs. 78.5%), 일반 고등학교가 특수고등학교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84.7% vs. 77.8%). 소득수준에 따른 문화예술활동 경험비율은 상위층이 가장 높았고(87.2%), 그 다음으로 중산층(83.2%), 저소득층(76.4%)의 순이었다.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구 분 (n = 1,921)				문화예술활동 경험		문화예술활동 무경험		p-value
				1,595	83.0%	326	17.0%	
성별	남 학 생	986	51.3%	774	78.5%	212	21.5%	< 0.001
	여 학 생	935	48.7%	821	87.8%	114	12.2%	
학교유형	일 반	1,467	76.4%	1,242	84.7%	225	15.3%	0.001
	특 수	454	23.6%	353	77.8%	63	22.2%	
지역	서 울 시	165	8.6%	147	89.1%	18	10.9%	0.109
	광 역 시	640	33.3%	535	83.6%	105	16.4%	
	경 기 도	245	12.8%	203	82.9%	42	17.1%	
	기타지역	871	45.3%	710	81.5%	161	18.5%	
소득수준	저소득층	258	13.4%	197	76.4%	61	23.6%	0.002
	중 산 층	1,288	67.0%	1,071	83.2%	217	16.8%	
	상 위 층	375	19.5%	327	87.2%	48	12.8%	

주: 비율의 차이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은 Fisher의 정확한 검정을 통해 수행되었음.

2. 연구대상의 타당도와 신뢰도

연구변수의 개념적 일관성을 검증하기 위해, 환경특성(부모관심도, 또래애착도, 교사친밀도, 학습적응도)과 개인특성(자아정체성, 공동체의식)의 문항들에 대해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수행한 결과는 각각 표 2, 표 3과 같다. 설문 문항의 각각 이 요인을 설명하는 정도인 공통성(communality)이 권장기준인 0.5 미만인 문항은 제거하였다.

표 2는 청소년의 환경특성을 나타내는 설문 문항들에 대해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수행한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부모관심도(3개 문항), 또래애착도(6개 문항), 교사친밀도(4개 문항), 그리고 학습적응도(4개 문항)의 총 누적분산이 60.06%로 매우 양호하였다. 추출된 변수들의 신뢰도는 모두 권장 기준인 0.5를 상회하였다.

표 2

환경특성 변수의 타당도와 신뢰도

측정 변수		F1	F2	F3	F4	공통성	신뢰도
부모 관심도	부모님은 내 몸이나, 옷, 이불 등이 깨끗하도록 항상 신경 쓰신다	0.816	0.131	0.111	0.100	0.706	0.697
	부모님은 내가 많이 아프면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신다	0.781	0.201	0.080	0.080	0.664	
	부모님은 내가 학교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관심을 갖고 물어보신다	0.685	0.157	0.127	0.134	0.528	
또래 애착도	내 친구들은 나를 잘 이해해 준다	0.173	0.784	0.097	0.076	0.660	0.844
	나는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을 때 친구들에게 말할 수 있다	0.055	0.765	0.147	0.003	0.609	
	나는 내 친구들에게 내 고민과 문제에 대해 이야기한다	-0.010	0.750	0.172	0.031	0.592	
	내 친구들은 내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인다	0.175	0.721	0.063	0.213	0.599	
	내 친구들은 나와 이야기를 나눌 때 내 생각을 존중해 준다	0.170	0.709	0.043	0.233	0.588	
	나는 내 친구들을 믿는다	0.173	0.708	0.107	0.024	0.543	
교사 친밀도	학교 밖에서 선생님을 만나면 반갑다	0.045	0.127	0.826	0.099	0.710	0.771
	선생님과 이야기하는 것이 편하다	0.018	0.167	0.806	0.124	0.693	
	선생님을 만나면 반갑게 인사한다	0.119	0.139	0.678	0.189	0.530	
	우리 선생님께서는 나에게 친절하시다	0.198	0.060	0.629	0.161	0.535	
학습 적응도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잘 알고 있다	0.087	0.087	0.128	0.799	0.670	0.748
	학교 숙제를 빠뜨리지 않고 한다	0.136	0.042	0.045	0.765	0.608	
	모르는 것이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물어본다	0.081	0.134	0.172	0.693	0.534	
	학교 수업 시간이 재미있다	0.046	0.141	0.339	0.611	0.510	
고유값		1,349	5,217	1,508	1,349	누적 분산(%)	
분산(%)		7.93	30.69	12.56	8.87	60.06	

KMO's MSA = 0.865, Bartlett Sphericity test : p-value < 0.001

표 3은 청소년의 개인특성을 나타내는 설문 문항들에 대해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수행한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자아정체성은 긍정적 자아정체성과 부정적 자아정체성이라는 두 개의 차원으로 구분되었고, 공동체의식과 함께 총 누적분산은 65.36%였고, 추출된 변수들의 신뢰도는 모두 권장 기준인 0.5를 상회하였다.

표 3

개인특성 변수의 타당도와 신뢰도

측정변수			F1	F2	F3	공통성	신뢰도
자아 정체성	긍정적	나는 계획한 대로 일을 끝까지 실행한다	0.820	0.002	0.140	0.700	0.508
		나는 뚜렷한 삶의 목표를 정해놓고 있다	0.814	-0.133	0.098	0.647	
	부정적	나는 낯선 사람을 만나는 것을 꺼려한다	-0.031	0.860	-0.118	0.754	0.658
		나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에는 마음이 불편하다	-0.096	0.860	-0.070	0.737	
공동체의식	공휴일에 쉬지 못하더라도 복지기관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다		0.059	-0.032	0.792	0.631	0.701
	우리나라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를 돕기 위해 기부금을 낼 수 있다		0.150	-0.007	0.773	0.620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 물자절약, 쓰레기 분리수거, 재활용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0.039	-0.065	0.763	0.588	
	주변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친구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다		0.154	-0.275	0.632	0.498	
고유값			2.703	1.373	1.154	누적분산(%)	
분산(%)			33.79	17.16	14.42	65.36	
KMO's MSA = 0.730, Bartlett Sphericity test : p-value < 0.001							

표 4는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추출된 연구 변수(잠재요인)들의 구성개념에 대한 타당도와 적합도를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수행한 결과이다. 측정 변수들의 구성개념 적합도지수(중분 적합도지수)인 CFI, NFI, TLI는 환경특성과 개인특성 각각에서 수용기준(0.9)을 모두 만족한 결과를 보였다. 전체에 대해서는 NFI와 TLI가 0.9에 근사하였고 CFI는 0.906이었다. 그리고 간명성 조정지수(RMSEA)는 환경특성이 0.063, 개인특성이 0.049, 그리고 전체가 0.052로 수용기준인 0.08보다 낮게 나타나 측정변수들의 구성개념 타당도가 양호하였다.

표 4

개인특성과 환경특성 측정변수들의 구성개념도 검증

적합도지수	χ^2	df	CFI	NFI	TLI	RMSEA
환경특성	978.9***	113	0.917	0.907	0.900	0.063
개인특성	96.2***	17	0.967	0.960	0.946	0.049
전체	1556.3***	254	0.906	0.890	0.889	0.052

*** p-value < 0.001

3. 연구변수의 상관관계

표 5는 연구변수들에 대해 Pearson의 상관분석을 수행한 결과이다. 상관계수들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련성을 보였다(p -value < 0.001). 자아정체성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 환경변수는 교사친밀도(0.342)였고, 그 다음으로 또래애착도(0.334), 학습적응도(0.313), 부모관심도(0.231)의 순이었다. 공동체의식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 환경변수는 교사친밀도(0.373)이었고, 그 다음으로 학습적응도(0.353), 또래애착도(0.300), 부모관심도(0.238)의 순이었다.

표 5

변수의 상관관계, 평균과 표준편차 (n = 1,921)

	부모관심도	또래애착도	교사친밀도	학습적응도	자아정체성	공동체의식
부모관심도	1					
또래애착도	0.368***	1				
교사친밀도	0.282***	0.330***	1			
학습적응도	0.302***	0.286***	0.411***	1		
자아정체성	0.231***	0.334***	0.342***	0.313***	1	
공동체의식	0.238***	0.300***	0.373***	0.353***	0.304***	1
평균	1.193	1.083	0.742	0.512	0.331	0.766
표준편차	0.641	0.597	0.809	0.834	0.765	0.728
최대값	2	2	2	2	2	2
최소값	-2	-2	-2	-2	-2	-2

*** p -value < 0.001

4. 문화예술활동 경험여부에 따른 평균비교

표 6은 문화예술활동 경험여부에 따른 연구변수들의 평균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정을 수행한 결과이다. 문화예술활동 경험집단은 무경험집단에 비해, 환경특성변수들과 개인특성변수들 모두가 평균이 유의적으로 더 높았다.

표 6

문화예술활동 집단에 따른 연구대상 변수들의 평균 차이

	문화예술활동 경험 (n = 1,595)	문화예술활동 무경험 (n = 326)	p-value
	Mean ± SD	Mean ± SD	
부모관심도	1,217 ± 0.632	1,080 ± 0.676	< 0.001
또래애착도	1,098 ± 0.586	1,013 ± 0.648	0.020
교사친밀도	0,770 ± 0.791	0,604 ± 0.881	0.002
학습적응도	0,567 ± 0.807	0,240 ± 0.908	< 0.001
자아정체성	0,367 ± 0.748	0,156 ± 0.825	< 0.001
공동체의식	0,815 ± 0.694	0,524 ± 0.832	< 0.001

5. 자아정체성과 공동체의식에 대한 영향요인

표 7은 자아정체성과 공동체의식에 대한 영향요인을 각각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 분석을 수행한 결과이다. 문화예술활동의 조절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문화예술활동 경험집단과 무경험집단 각각에 대하여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자아정체성을 종속변수로 분석한 모형에서는 독립변수로 성별구분, 학교구분, 지역구분, 소득집단, 부모관심도, 또래애착도, 교사친밀도, 학습적응도를 설정하였다. 공동체의식을 종속변수로 분석한 모형에서는 전술한 독립변수에 자아정체성을 추가하였다. 자아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문화예술활동 경험집단은 학교유형과 소득더미변수(중산층)를 제외한 모든 독립변수가 유의적이었지만, 무경험집단은 소득더미변수(중산층과 상위층)와 부모관심도가 유의적이지 않았다. 공동체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문화예술 경험집단은 학교유형, 소득더미변수(중산층과 상위층), 부모관심도를 제외한 모든 변수가 유의적이었지만, 무경험집단은 성별구분, 교사친밀도, 학습적응도만 유의적이었다. 특히 문화예술 경험집단에서는 자아정체성이 공동체의식에 유의적인 양(+)의 영향을 미쳤지만, 무경험집단에서는 그러한 관계가 유의적이지 않았다.

표 7

자아정체성과 공동체의식에 대한 영향요인

종속 변수	독립변수	문화예술활동 경험집단 (n = 1,595)				문화예술활동 무경험집단 (n = 326)			
		β	p-value	Partial R	VIF	β	p-value	Partial R	VIF
자 아 정 체 성	(상수)	-0.337	<0.001			-0.545	<0.001		
	성별구분 ¹⁾	0.112	0.001	0.083	1.037	0.196	0.027	0.124	1.035
	학교유형 ²⁾	0.048	0.358	0.023	2.166	0.319	0.004	0.160	1.580
	지역구분 ³⁾	0.137	0.025	0.056	2.221	0.447	0.003	0.164	1.672
	소득더미1 ⁴⁾	-0.059	0.146	-0.037	1.050	0.095	0.312	0.057	1.095
	소득더미2 ⁴⁾	0.066	0.049	0.049	1.006	-0.133	0.127	-0.086	1.026
	부모관심도	0.086	0.003	0.075	1.225	-0.044	0.533	-0.035	1.344
	또래애착도	0.272	<0.001	0.211	1.264	0.198	0.007	0.152	1.268
	교사친밀도	0.177	<0.001	0.206	1.272	0.178	0.001	0.193	1.365
	학습적응도	0.141	<0.001	0.148	1.329	0.153	0.002	0.170	1.178
		Adjusted R^2 : 22.1%				Adjusted R^2 : 17.4%			
공 동 체 의 식	(상수)	0.332	<0.001			0.425	0.012		
	성별구분	-0.225	<0.001	-0.154	1.044	-0.435	<0.001	-0.245	1.051
	학교유형	0.052	0.348	0.024	2.167	-0.080	0.511	-0.037	1.622
	지역구분	0.129	0.050	0.049	2.228	-0.101	0.546	-0.034	1.718
	소득더미1	0.053	0.230	0.030	1.051	0.019	0.851	0.011	1.099
	소득더미2	-0.013	0.723	-0.009	1.008	-0.062	0.516	-0.037	1.034
	부모관심도	0.053	0.089	0.043	1.232	0.094	0.225	0.068	1.346
	또래애착도	0.104	0.003	0.075	1.323	0.033	0.679	0.023	1.298
	교사친밀도	0.143	<0.001	0.153	1.329	0.268	<0.001	0.258	1.418
	학습적응도	0.165	<0.001	0.160	1.359	0.207	<0.001	0.208	1.213
	자아정체성	0.125	<0.001	0.116	1.291	0.078	0.202	0.072	1.245
		Adjusted R^2 : 18.5%				Adjusted R^2 : 24.0%			

1) 성별구분 : 여학생(0), 남학생(1)

2) 학교유형 : 특수교(0), 일반교(1)

3) 지역구분 : 지방(0), 도심(1)

4) 소득더미1 : 중산층아님(0), 중산층(1) / 소득더미2 : 상위층아님(0), 상위층(1)

6. 문화예술활동 경험집단과 무경험집단에 대한 경로분석

경로분석을 위한 연구모형은 그림 1에서 제시한 것처럼, 모든 경로를 고려한 충만 모델(Saturated Model, $df = 0$)이다. 연구모형의 타당성과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해 제약모형 1과 제약모형 2를 경쟁모형으로 하였다. 제약모형 1은 환경특성변수들과 자아정체성의 경로를 동일한 계수값으로 설정하였고, 경쟁모델 2는 모든 경로의 계수값을 동일하게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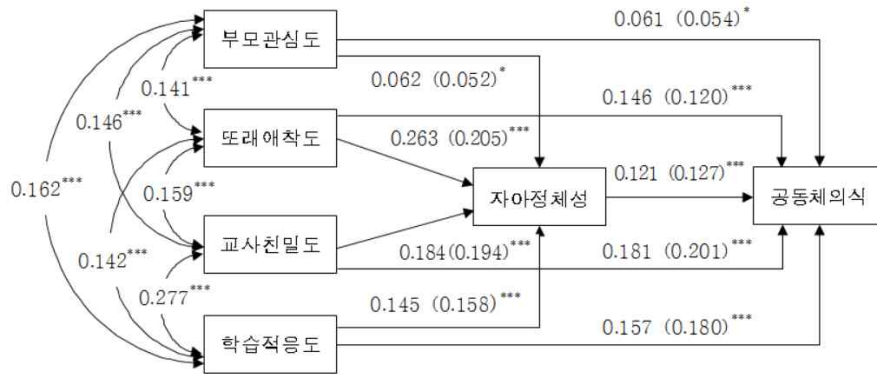
표 8은 카이스퀘어 검정과 적합도 검정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제약모델 1과 2는 포화판별 연구모형의 위계적 모형으로 카이제곱 차이 통계량이 각각 21.49, 41.05로 유의확률이 0.001 수준보다 낮았다. 연구모형을 트리밍(trimming)하는 과정에서 ‘적합도가 동일하다’는 가설이 기각되므로 모형이 단순화되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증분 적합도지수(CFI, NFI, TLI) 모두 권장수준인 0.9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간명성 조정지수(RMSEA)는 권장수준인 0.08을 넘지 않았다. 따라서 포화판별 연구모형의 타당성과 적합성이 검증되었다.

표 8
연구모델의 타당도 검정

적합도지수	χ^2	df	CFI	NFI	TLI	RMSEA
제약모델1	21.49***	3	0.990	0.989	0.952	0.057
제약모델2	41.05***	8	0.983	0.979	0.968	0.046

*** p -value < 0.001

그림 2와 표 9는 연구대상 1,921명 전체에 대한 경로분석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표본 전체에 대한 경로분석 결과는 모든 경로가 유의하였다. 환경특성 변수들 가운데 자아정체성에 상대적으로 높은 영향을 주는 경로는 또래애착도(0.263)였다. 그 다음으로 교사친밀도(0.184), 학습적응도(0.145), 부모관심도(0.062)의 순이었다. 공동체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들의 전체효과를 비교해보면(표 9 참조), 교사친밀도가 0.203, 또래애착도가 0.178, 학습적응도가 0.175, 자아정체성이 0.121, 부모관심도가 0.069 순으로 나타났다.



주: ↔ 공분산, → 경로계수 (실선 — : 유의한 경로, 점선 --- : 유의하지 않은 경로)

비표준화계수(표준화계수) * p -value<0.05, ** p -value<0.01, *** p -value<0.001

그림 2. 연구모델의 경로분석 결과 (n=1,921)

표 9

연구변수들의 전체효과 : 공동체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n=1,921)

	공동체의식	부모관심도	또래애착도	교사친밀도	학습적응도	자아정체성
직접효과		0.061*	0.146***	0.181***	0.157***	0.121***
간접효과 ¹⁾		0.008**	0.032***	0.022***	0.018***	-
전체효과		0.069**	0.178***	0.203***	0.175***	0.121***

* p -value<0.05, ** p -value<0.01, *** p -value<0.001

1) 간접효과는 ‘각 변수와 자아정체성의 경로’에 대한 비표준화계수와 ‘자아정체성과 공동체의식의 경로’에 대한 비표준화계수를 곱한 값이며, 이에 대한 유의성 검정은 Sobel Test로 하였음.

연구대상 1,921명을 문화예술활동 경험집단과 무경험집단으로 구분하여 경로분석을 수행하였다. 그림 3과 표 10은 문화예술활동 경험집단 1,595명에 대한 경로분석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문화예술활동 경험집단은 ‘부모관심도 → 공동체의식’의 경로를 제외하고 모든 경로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자아정체성에 대한 영향요인으로서 또래애착도의 비표준화계수가 0.277로 다른 변수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고, 교사친밀도는 0.193, 학습적응도는 0.131이었다. 공동체의식에 대한 전체효과를 비교해보면(표 10

참조), 교사친밀도와 또래애착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0.188). 그 다음으로 학습적응도(0.160), 자아정체성(0.128), 부모관심도(0.054)의 순이었으며, 부모관심도는 유의한 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특히 매개변수로서 자아정체성이 공동체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0.128로 유의했다. 부모관심도는 공동체의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고, 자아정체성을 통한 매개효과를 통해 공동체의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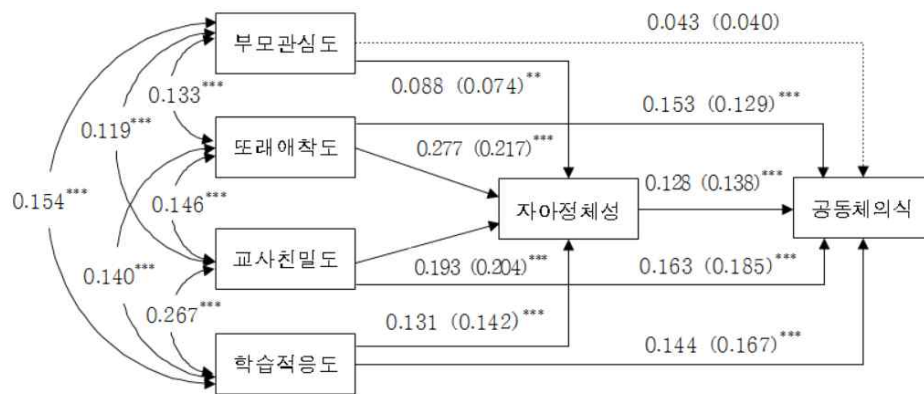


그림 3. 문화예술활동 경험집단의 경로분석 결과 (n=1,595)

표 10

문화예술활동 경험집단의 전체효과 (n=1,595)

	공동체의식	부모관심도	또래애착도	교사친밀도	학습적응도	자아정체성
경험집단 (n=1,595)	직접효과	0.043	0.153***	0.163***	0.144***	0.128***
	간접효과	0.011**	0.035***	0.025***	0.017***	-
	전체효과	0.054	0.188***	0.188***	0.160***	0.128***

* p -value<0.05, ** p -value<0.01, *** p -value<0.001

그림 4와 표 11은 문화예술활동 무경험집단 326명에 대해 경로분석을 수행한 결과이다. ‘부모관심도 → 자아정체성’, ‘부모관심도 → 공동체의식’, ‘또래애착도 → 공동체의식’, 그리고 ‘자아정체성 → 공동체의식’의 경로가 지지되지 못하였다. 자아정체성에 대한 영향요인으로서 또래애착도는 비표준화계수가 0.209로서 다른 변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고, 다음으로 교사친밀도 0.174, 학습적응도 0.152의 순이었으며, 부모관심도는 유의하지 않았다. 특히 문화예술활동 경험집단과 달리 자아정체성이 환경 특성변수와 공동체의식을 매개하는 경로가 유의적이지 않았다. 문화예술활동 무경험 집단의 공동체의식에 대한 전체효과를 비교해보면(표 11 참조), 교사친밀도가 0.257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학습적응도가 높았고(0.185), 다른 변수들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환경변수와 공동체의식을 매개하는 자아정체성의 전체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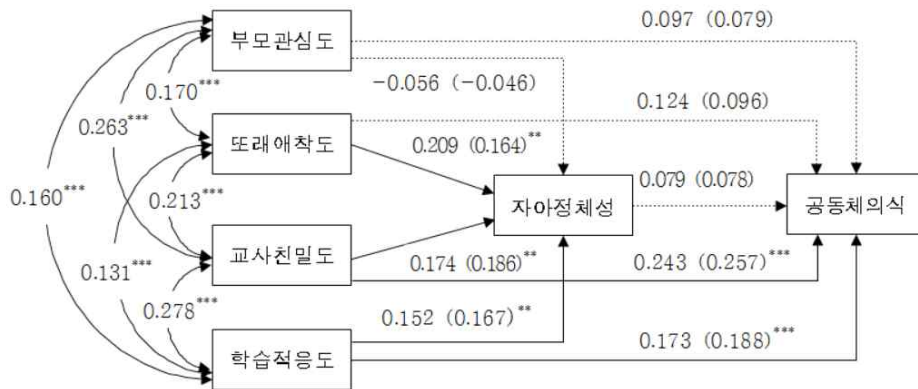


그림 4. 문화예술활동 무경험 집단의 경로분석 결과 (n=326)

표 11

문화예술활동 무경험 집단의 전체효과 (n=326)

	공동체의식	부모관심도	또래애착도	교사친밀도	학습적응도	자아정체성
무경험집단 (n=326)	직접효과	0.097	0.124	0.243***	0.173***	0.079
	간접효과	-0.004	0.016	0.014	0.012	-
	전체효과	0.093	0.140	0.257**	0.185**	0.079

* p -value<0.05, ** p -value<0.01, *** p -value<0.001

V. 논의 및 결론

이 연구는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5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고등학교 2학년 1,921명을 연구대상으로, 청소년의 문화예술활동이 자아정체성과 공동체의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경로모형을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문화예술활동 경험집단($n = 1,595$)과 무경험집단($n = 326$) 사이에 유의한 경로에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였는데, 주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문화예술활동 경험집단은 부모관심도를 제외한 모든 환경변수가 공동체의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자아정체성은 환경변수와 공동체의식을 매개하는 효과가 존재했다. 반면에 문화예술활동 무경험 집단은 경험집단에 비해 유의한 경로가 제한적이었으며, 자아정체성의 매개효과가 존재하지 않았다. 즉 무경험집단은 교사친밀도와 학습적응도만이 공동체의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경험집단과는 달리 또래애착도가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적이지 않았다. 환경특성으로서 또래애착도, 교사친밀도, 그리고 학습적응도는 자아정체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자아정체성이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적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문화예술활동 경험이 자아정체성의 확립을 통해 공동체의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은 공동체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수라는 것을 제시한다.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와 함께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예술활동 경험집단과 무경험집단 모두에서 자아정체성에 영향이 가장 큰 환경특성은 또래애착도였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자아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 또래집단이라는 선행연구 결과들(이원규, 1997; 김근영, 2012; 장휘숙, 2009)과 일치한다. 그 다음으로 영향력이 큰 변수는 교사친밀도, 학습적응도였고, 이들은 모두 학교생활적응과 관련이 있는 변수이다. 부모친밀도는 문화예술활동 경험집단에서는 자아정체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지만, 무경험집단에서는 유의적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 이는 문화예술활동이 부모친밀도와 자아정체성의 관계를 조절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문화예술활동 경험은 부모친밀도가 자아정체성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강화한다는 것을 제시한다. Erickson(1956)에 따르면 청소년기는 자아정체성 형성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기이며, 이는 전 생애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하지만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입시경쟁에 지쳐서 자아정체성을 확립할 여유를 갖지 못하며, 이는 위

축이나 공격성 같은 부정적 정서 문제뿐만 아니라 장애에 대한 꿈과 희망의 상실이라는 근본적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조유나, 2010). 이 연구에서 문화예술활동 경험집단은 무경험집단에 비해 자아정체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모든 환경특성변수들의 평균뿐만 아니라 자아정체성 평균 그 자체도 유의적으로 높았다(표 6 참조). 이는 청소년의 문화예술활동이 자아정체성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한다.

둘째, 청소년의 문화예술활동 경험은 자아정체성의 매개효과를 통해 공동체의식에 형성하는 긍정적인 양(+)의 영향을 미친다. 문화예술활동 무경험집단은 부모관심도를 제외하고 또래애착도, 교사친밀도, 학습적응도가 자아정체성에 양(+)의 영향을 주었지만, 자아정체성이 공동체의식에 영향을 주는 경로가 유의하지 않아 매개효과가 존재하지 않았다. 반면에 문화예술활동 경험집단은 모든 환경특성변수가 자아정체성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고, 자아정체성이 공동체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효과가 존재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문화예술활동의 정서적 순화 기능이 자신과 타인에 대한 수용성을 높여, 자아정체성이 공동체의식으로 이어지게 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Winkley(1996)는 청소년의 문화예술활동이 자아를 형성하고 공동체의식을 조성하는 정서적 기반을 제공한다고 하였다.

셋째, 문화예술활동 경험집단과 무경험집단 모두에서 공동체의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교사친밀도와 학습적응도였다. 이들은 모두 학교환경과 관련된 변수로서,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이 공동체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이라는 것을 제시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학교생활적응이 공동체의식과 관련 있다는 선행연구들과 일치한다(강가영, 장유미, 2013; 김상미, 남진열, 2011; 우유라, 노충래, 2014; 최형임, 문영경, 2013). 우리나라 학교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집단따돌림이나 학교폭력은 배타적 공동체의식에 기인한 것이다. 김상미와 남진열(2011)은 청소년이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생활하는데 교사와의 친밀, 학습활동의 적응, 그리고 또래 친구와의 친밀감이 공동체의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 또래애착도는 문화예술활동 경험집단에서는 공동체의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지만, 무경험집단에서는 유의한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 무경험집단에서 또래집단은 배타적 공동체의식이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문화예술활동 경험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한다.

청소년기는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자기 내면에 대한 깊은 통찰을 통해 자아를 발견

하고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이는 장래 직업과 같은 삶의 목표와 공동체의식과 같은 가치관에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우리나라 교육현실은 입시교육에 치우쳐, 청소년 자신과 사회에 대한 통찰의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세계 각국의 청소년(만 15세)을 대상으로 한 2012년 국제학업성취도평가(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PISA)의 분석결과에서도 알 수 있다. 한국 학생의 읽기 능력은 세계 최상급이지만, 사회활동이나 직업수행을 위한 실용적 정보를 습득하는 독해능력은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박혜영, 구자옥, 2016). 읽기는 사회 전반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현행 교육체제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방과후학교나 2016년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자유학기제 등의 시도가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과 그 해결책을 염두에 둔 프로그램으로 기획 및 정착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문화예술활동은 그저 건전한 여가활동이 아닌 자아정체성과 공동체의식의 형성이라는 순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청소년 문화예술활동의 효과성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문화예술활동이 자아정체성과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하지만 문화예술활동의 구체적 내용과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문화예술활동 경험 유무로서만 구분하였다는 한계를 갖는다. 특히 문화예술활동 경험을 학교행사를 제외한 음악회, 영화, 뮤지컬, 전시회, 연극 등의 관람 여부로 측정하여, 실제 문화예술교육이나 연주 혹은 창작 등의 경험 효과를 분석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문화예술활동이 지나치게 단순하고 획일적으로 측정되어 연구결과를 가지고 폭넓은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또한 문화예술활동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은 연령과 같은 성장발달과정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이를 반영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한계들은 추후 연구에서 극복되어야 할 문제점이며, 종교활동과 같은 청소년의 자아정체성과 공동체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의 비교연구는 향후 과제가 된다.

참고문헌

- 강가영, 장유미 (2013). 청소년의 공동체의식에 관한 연구. **미래청소년학회지**, 10(1), 97-123.
- 교육부 (2013).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범운영 계획안**(2013년 5월 28일). <http://www.moe.go.kr/web/100012/ko/board/view.do?bbsId=316&boardSeq=47981>에서 2016년 11월 7일 인출.
- 권혜원 (2004). **중학생의 민주 시민 의식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근영 (2012). 청소년기 자아정체성 연구의 대안적 접근: 서술적 정체성 발달. **청소년학 연구**, 19(3), 85-108.
- 김상미, 남진열 (2011). 청소년의 또래애착과 학교생활적응이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 삶의 만족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미래청소년학회지**, 8(4), 225-242.
- 도종수, 성준모 (2013). 청소년활동 경험이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15(2), 145-173.
- 맹영임, 김민, 임경희 (2005).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민병수 (1991). **학교생활적응과 자아개념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아청, 김혜숙, 김창대 (1996). **청소년발달상담**. 서울: 청소년 대화의 광장.
- 박영란 (2002). **중학생의 자아정체감과 학교 적응 및 학업 성취도와의 관계**.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혜영, 구자옥 (2016). PISA 읽기능력 수위, 사회활동·실생활 읽기능력 떨어져. **한국일보**, 2016년 3월 11일.
- 송길연 (2000). **발달심리학**. 서울: 시그마프레스.
- 송연옥 (2008). **청소년기의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 간의 구조 분석**. 계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우순기 (2007). **청소년 자아정체성 형성에 종교가 미치는 영향**. 상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우유라, 노충래 (2014). 청소년의 부정적 정서 및 공격성과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공동체의식의 매개효과. **청소년복지연구**, 16(2) 203-227.

- 이동원, 주동범 (2000). 지역갈등에 대한 청소년의식 조사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 보고서**, 3-114.
- 이미리 (2005). 청소년기 자아존중감과 가족, 친구, 학업, 여가, 직업 변인의 적응도: 긍정적 자아평가와 부정적 자아평가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16(2), 263-293.
- 이원규 (1997). **종교사회학의 이해**. 서울: 사회비평사.
- 이종연, 이재신 (2000). 괴롭힘 경험을 가진 학생들의 자아정체감, 사회적지지 및 학교 생활 적응의 관계. **교육연구논총**, 4, 47-75.
- 이차선 (1998).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형성요인 분석**.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현림, 천미숙 (2003). 청소년의 자아정체감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 분석. **청소년학 연구**, 10(4), 511-514.
- 임영식, 정경은 (2014). 교정시설/소년원학교 문화예술교육 효과성 연구. **교정연구**, 64, 115-145.
- 장승옥, 한선혁 (2004). 청소년 문화활동과 자아존중감의 관계: 칠곡군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학연구**, 11(4), 185-207.
- 장휘숙 (2009). **청년심리학**. 서울: 박영사.
- 조유나 (2010). 꿈 없는 아이들의 정기모임. **조선일보**, 2010년 1월 29일, A29.
- 주동범 (2010). 청소년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기능과 역할 탐색. **상담평가연구**, 3(1), 61-70.
- 최병목 (2002). **사이버 문화의 새로운 현상과 사회변화**. 서울: 정보통신윤리위원회.
- 최영민 (2006). **기독교 관점에서 본 청소년의 자아정체성 형성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최현수 (2009). **청소년 자아정체성 형성의 영향 요인**.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최형임, 문영경 (2013). 청소년의 공동체의식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역 사회복지학**, 45, 189-209.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1). **문화예술교육 효과성연구: 예술꽃 씨앗학교를 중심으로**. 서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한국방정환재단 (2014). **2014년도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연구 조사 결과보고서**. 서울: 한국방정환재단.

- 한영민 (2007). 청소년 문화가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고찰. *인간이해*, 28, 51-71.
- 허보연 (2000).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행동 척도 개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Akkinson, S., & Robson, M. (2012). Arts and health as a practice of liminality: Managing the spaces of transformation for social and emotional wellbeing with primary school children. *Health & Place*, 18, 1348-1355.
- Armsden, G. C., & Greenberg, M. T. (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5), 427-454.
- Daykin, N., Orme, J., Evans, D., Salmon, D., McEachran, M., & Brain, S. (2008). The impacts of participation in performing arts on adolescent health and behaviour.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13(2), 251-264.
- Erikson, E. H. (1956). The problem of ego identity. *JAPA*, 4, 56-121.
- Hampshire, K., & Matthijsse, M. (2010). Can arts projects improve young people's wellbeing? A social capital approach. *Social Science & Medicine*, 71, 708-716.
- Hoynes, W. (2003). The arts, social health, and the development of cultural indicators.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26(7), 773-788.
- Jermyn, H. (2001). *Arts and social exclusion*. United Kingdom: Arts Council England.
- Joronen, K., Rankin, S., & Astedt-Kurki, P. (2008). School-based drama interventions in health promotion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Systematic review. *Journal of Advanced Nursing*, 63(2), 116-131.
- Lowem, S. (2000). Creating community: Art for community development. *Journal of Contemporary Ethnography*, 29(3), 357-386.
- MacIver, Robert M. (1951). *Community*.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 Marcia, J. E. (1966).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ego-identity statu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 551-558.
- McCarthy, K., Ondaatje, E., Zakaras, L., & Brokkes, A. (2004). *Gifts of the muse: Reforming the debate about the benefits of the arts*. Santa Monica: RAND Institute.

- McGuigan, J. (2004). *Rethinking cultural policy*. Berkshire, England: Open University Press.
- McMillan, David W., & Chavis, David M. (1986). Sense of Community: A definition and theory.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4(1), 6-23.
- Miller, Patricia H. (2010). *Theories of developmental psychology*. New York: Worth.
- Mulcahy, K. V., & Swaim, C. R. (Eds.). (1982). *Public policy and the arts*. Boulder, CO: Westview Press.
- Winkley, W. (1996). *Emotional problems in children and young people*. 신현순 역 (2000). **아동과 청소년의 정서장애**.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ABSTRACT

Arts and cultural activities and community sense among Korean adolescents: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identity

Jung, Deuk* · Kim, Eunsoo** · Lee, Jongseok***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mpirically investigate the effects of arts and cultural activities on the sense of community from an ecological perspective. The data thus used came from the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2015 (KCYPs 2015) conducted by the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Analysis was conducted upon 1,921 high school junior students (986 males and 935 females). Based on an ecological perspective of adolescent growth and development, we conducted a path model analysis where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such as parent intimacy, friend intimacy, teacher intimacy, and study adaptation) have an influence on the sense of community as an individual characteristic. In this model, self-identity mediates the causal pathway between the environmental variables and the sense of community, providing that the environmental variables are causally related to the self-identity and the self-identity is causally related to the sense of community. To examine whether or how arts and cultural activities affect the sense of community, we compared the difference in the statistically significant path between two groups classified according to whether they participated in arts and cultural activities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The engagement group (n = 1,595) in arts and cultural activities showed that all the

*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Hallym University, Ph. D. Candidate, The Chang-sol Methodist Church, Minister.

**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Hallym University, Ph. D. Candidate.

***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Hallym University, Professor.

paths except for that of parent intimacy remained significant in terms of positively influencing the sense of community. In particular, self-identity had a mediating effect between the environmental variables and the sense of community. In the non-engagement group ($n = 326$), however, a limited number of the paths were significant and there was no mediating effect of self-identity. That is, teacher intimacy and the study adaptation had positive effects on the sense of community, but parent intimacy and friend intimacy had no significant effect on the sense of community. The variables of friend intimacy, teacher intimacy, and study adaptation had positive effects on self-identity, however, self-identity did not affect the sense of community significantly. These results indicate that the adolescent adaptation to school life is a major influencing factor on the sense of community, and participating in arts and cultural activities by adolescents plays a positive role in establishing their self-identity, which in turn, leads to development of their sense of community.

Key Words: adolescent, arts & cultural activity, community sense, self-identity, mediating effect, path analysis

투고일: 2016. 9. 5, 심사일: 2016. 11. 1, 심사완료일: 2016. 11. 10